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공동체학교 2학기 개학  
25일(목) : 꾸러기학교, 어린이학교.  
28일(일) : 멋쟁이학교
- 멋쟁이학교 4학년이 '해외 문화체험학습'으로 23일(화) 출국합니다.  
31일간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를 다녀옵니다.
-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 정기 대표자회의(총회)가 23일(화) 라파 공동체에서 모입니다.
- 여름공동체생활 '물질의 나눔' 헌금은 선교위원회를 통해 새터마을교회에 전달했습니다.
- 역할공동체 실행위원회 2/4분기 정기회의가 다음 주일(28일) 오후에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어람 집사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윤산 청년 ( 생일 감사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34 호

2022년 8월 21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선교의 사명

7월 중순에 시작했던 사랑방공동체학교의 방학이 끝나갑니다. 방학이 시작되고 나서 손님을 맞이하고 여름공동체생활을 하고 휴가기간 동안 비가 계속 내리더니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행은 여행을 떠나기 전이 가장 설렌다고 했는데 방학도 방학을 앞두고 있던 시간이 가장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작년 12월에 대안교육기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등록제'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학력인정이나 재정지원과 같은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어 아직은 갈 길이 멀고 관련법들을 제정하는 일들이 남아 있지만 분명 큰 한 걸음을 옮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동안에는 유난히 이 일과 관련된 여러 번의 대안교육기관 연합 회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대안학교 모임, 경기도 대안학교 모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안교육기관법 설명회 등.. 공식적인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지속해 나가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전국에 많은 분들이 사명감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고 계심을 보며 많은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면, 우려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등록제를 신청하여 등록된 학교들에게는 당연히 재정지원을 해야하며 재정을 지원한다면 교과과정이나 그 외에 학교 운영에 관한 어떤 통제도 좋다고 찬성하는 많은 학교를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대안학교들은 교회에서 설립하거나 교회의 후원을 받는 곳들이 많아서 좀 덜 하기도 하지만 일반 대안학교들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긴하나 등록제에 등록이 된다면 모두 똑같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방공동체학교를 생각해봅니다. 사랑방공동체학교는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선교'의 뜻을 가지고 설립되었고 올 해가 1992년 꾸러기학교가 설립된지 30년, 2002년 어린이학교와 멋쟁이학교가 설립된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 20년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얘기하자면 몇 일 밤을 새우더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대안학교 연합 모임에 가면, 사랑방공동체에 그랬던 것처럼 '사랑방공동체학교가 저희 학교의 모델입니다.' '사랑방공동체학교가 저희 학교의 모체입니다.' '사랑방공동체학교가 있는 것만으로 든든합니다.'라고 얘기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편으로 좋으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헤롯 왕은 세례요한이 동생 아내와 결혼 것을 옳지 않다고하자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심지어 보호해 주었고,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싶지만 오히려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달게 들리는 것.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이 옳은 것을 알지만 그것이 자신을 고민하게 만들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을 죄책감이 들게 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선명하게 들여다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짓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일에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요한을 죽이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달고, 그 말씀이 당연히 옳은 말씀인 줄을 알지만, 그 말씀이 나를 고민하게 만들 때..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옳은 말씀 앞에 행동의 변화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헤롯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해는 1년에 2번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기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동체학교는 아직 준비중에 있어 올 해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선교'라는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지나온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길을 의탁드립니다. 매 순간 그렇지만 특별히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공동체학교가 지혜롭게 응답하고 행동할 수 있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 한주간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  
< 마태복음서 28장 19~20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성경 : 마가복음 2장

제목 : 새로운 시대를 여신 예수님

인도 : 정재훈 목사

기도 : 김영화 권사

찬송 : 80 96 459

####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12절 중풍병자를 고치심>

13~17절 세리 레위를 부르심>

18~22절 금식 논쟁>

23~28절 안식일 논쟁>

#### 2. 내용의 의미(Why)

매 사건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당신은 누구이기에 이렇게 행합니까'입니다. 예수님은 여느 랍비와 같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은 이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 3. 의미의 적용(How)

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읽자.

②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개혁 하자.

## 사랑이 있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요란스럽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입추가 지나니 저녁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 선풍기를 끄고도 잠을 잘 정도가 되었습니다.

긴 코로나의 시간들과 80년 만의 폭우에 일어난 이 여름의 일들은 후에 우리들의 이야깃거리로 기억될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변하지만 흐르는 시간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퇴직을 하고, 대학교도 집에서 다닌 두 아이가 올 초에 독립을 했습니다. 항상 북적거리던 일상에서 남편과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집 마당의 작은 목공실에서 목수라는 직업으로 다시 시작한 남편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저희 부부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결혼생활이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요즘에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이렇게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내 안에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방공동체의 가족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변함없이 사랑방공동체와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지나가고 있지만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 곧 천국이다'라는 말을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는 단어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천국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만나는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사랑방공동체 가족분들과 사랑이 있는 이곳의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사역공동체 임진숙 집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57 : 7-11 인도자  
8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갈라디아서 2 : 20 인도자  
382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마태복음서 28 : 16-20 설교자  
379 사랑방  
“ 제자들의 사명 ” 권재만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515 다함께  
인도자  
516(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이용신 진정행 / 봉헌위원 : 석지인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 공동기도문

저희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 제자들의 사명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을 통해 점점 확장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향해 그 명령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령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나라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아시아의 교회들을 거쳐 유럽, 남미와 북미 대륙, 그리고 동쪽에 작은 나라인 한국에 사는 우리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땅 끝에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가까이는 가정부터 전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 받았 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함께 동역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자들이 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영희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방학 동안 꾸러기들은 서로 집에 친구를 초대해서 함께 놀기도 하고 친척집에 놀러가기도 하고 학교에도 와서 놀고 밭도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밭에서는 방울토마토가 계속 빨갭게 익었고 딸기가 이제 몇 포기인지 세기도 힘들게 뺏어가고 있습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을 지나면 자연예배당에는 손볼 일이 많아집니다. 월요일에는 교사들이 화요일에는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자여예배당을 청소하고 꾸러기들이 쓸 물건들을 깨끗이 준비할 겁니다. 꾸러기 가정 수가 적어 만만치 않은 일이 되겠지만 모두가 마음을 모아 새학기를 준비하려합니다.

꾸러기들은 친구들과 찍은 사진과 함께 온, 개학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편지를 받고 네 밤만 자면 되는 개학을 기다리고 있겠지요.

꾸러기학교는 이번 학기에도 여섯살 하성이, 하온이, 지산이, 가람이 네 친구만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이번 학기에도 꾸러기들이 사랑방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먼저 함께 나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린이학교 6학년 학생 3명 모두 검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고민과 걱정이 많았지만 정작 시험지 앞에서는 즐겁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여 기분좋은 결과를 얻은 6학년 어린이들을 만나시면 축하해 주세요^^

방학은 언제나 아쉽습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 개학이 코 앞에 다가왔습

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낸 방학숙제를 성실히 하고 있는 어린이들도 있으며 부담스러워하며 방학생활을 돌아보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학교를 오고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습한 여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어린이학교의 교실들은 방학중에도 선생님들이 환기와 제습에 신경을 썼습니다. 어린이학교는 이번주 목요일에 개학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미리 함께 모여 회의도 하고 교실들을 돌아보며 부족한 것이나 고칠것들은 없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즐겁고 활기찬 어린이학교가 될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 주세요~

< 교사 : 권재만 >

멋쟁이학교

방학 첫 주간 선생님들은 학부모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이 만나서 멋쟁이들의 한 학기 생활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 집니다. 부모님들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 집니다. 이 시간은 이해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부모님이 한 학기 동안 훌쩍 큰 멋쟁이들을 대견해하며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에피소드에도 활짝 웃으시는 부모님을 보면 멋쟁이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우리 멋쟁이들!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거 알겠죠? ㅎㅎ 행복한 휴식과 보충의 방학이 되길 바랍니다 ~

< 교사 : 박예나 >

## 할머니를 기록하며 - 생각하는

장례식이 끝나고 외할머니의 앨범을 열었다. 다섯 권 남짓하게 2000년도 이전의 사진들이 모여있었다. 외삼촌은 꺼내 온 다섯 권의 앨범 중 가장 큰 앨범을 내게 안겼다. “할머니께서 때마다 꺼내 보셨던 앨범이야.” 안다. 어떤 사진들이 있었는지도 안다. 그리고 첫 장을 열었다.

앨범 첫 장, 양면을 가득 채우는 내 둘 사진을 마주했을 때는 언제나 묘한 추억에 잠긴다. 성인이 되고 한참까지 무말랭이가 실처럼 얇다고 생각했었다. 곱감은 씨가 빠져 있는 상태로 네 조각으로 쪼개져서 나온다고 믿었던 적이 있었다. 할머니의 음식은 그렇게 아주 작은 아이였던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집에 왔었다. 외갓집에서 이사 가던 날 차는 떠나갔음에도 마을 어귀까지 나와서 우시다 해가 지고야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는 마을에서 유명했다. 매번 안부를 물을 때면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되었고, 명절 때마다 “돈희네는 언제 오나?” 하시며 기다리셨다. 먼저 도착한 외삼촌이 집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고도, 시간이 안 간다며 쉬지 않고 새벽부터 음식을 만드셨다.

콧잔등을 만지며 흔적도 기억도 없는 상처가 자신 때문에 생겼다면 울먹이시던 모습도, 퇴약별에 발일을 나가면서 다 큰 청년의 얼굴이 탄다며 자신의 모자를 씌워주시던 모습도, 매번 반듯하게 두 번 접어둔 지폐 두어 장을 굳이 주머니에 넣어주셨던 모습도, 전화를 걸 때마다 사랑한다며 그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않았던 단어를 울먹이며 건네시는 목소리도, 손을 잡으면 “돈희야. 돈희야.” 하시며 다른 손으로 그렇게 손등을 쓰다듬던 모습도, 잠을 잘 때면 할머니의 품에 굳이 들어가 팔을 베고 잤던 기억도, 그럴 때면 흠뻑새로 마음이 포근해져서 어느새 잠이 들어버리던 기억도, 특별한 여행도 거창한 이야기도 없이 그저 옆에만 있어도, 아니 떨어져 있어도 사랑받고 있다는 그 간질거리는 확신을 주셨던 할머니는 이제 찾아볼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네 할머니들의 손주를 보는 그 시야처럼 특정 사건으로만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의 사건도 가슴을 고동시킨다. 그러나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분만은 언제나 사랑해주신다는 그 간질거리는 확신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

하나님나라가 그 간질거리는 확신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할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라면, 당신도 그곳에서 온갖 번뇌 없이 포근한 흠뻑새를 맡으며 잠들길.

디아코니아사랑방 이돈희 청년

##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에스더기 4장 14절

인도 : 이어진 전도사

기도 :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전 세계의 이상기후>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인한 몸살을 앓는 중입니다. 중국 중남부 일대에는 한 달 내내 고온경보를 내리며 수많은 가뭄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도 극심한 폭염피해가 이어지며 가뭄과 사상자가 잇달았습니다. 또 지역 곳곳에서는 기록을 갱신하는 폭우와 홍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환경과 공존하며 나아가는 삶의 방식을 고려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오두막공동체>

- 1) 생태자립마을 만들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 2) 몸과 마음이 어려운 이들이 더 많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 3) 연해주와 북한 선교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합니다.

###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공동체학교>

- 1) 개학하는 공동체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해외로 떠나는 멋쟁이학교 학생들의 좋은 경험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입추와 말복이 지나서 그런지 무림리의 밤기운이 서늘합니다. 한 낮과의 기온 차가 확연할 것을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실감합니다. 공동 휴가의 마지막과 방학의 끝을 향해 가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한 한 주였습니다.

주초에는 기독교대안학교연맹 사무총장님을 비롯하여 간사님 내외분과 이야기학교 교장선생님이 공동체를 방문하셨습니다. 금, 토요일은 선교공동체 실행 위원들께서 새터 교회를 비롯한 국내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고 두 학교 교감 선생님들은 기대연 교장단 연수에 다녀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침 기도회와 수요정오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공동체 마당이 각 학교 개학 준비로 시끌해질 예정입니다. 잘 쉬었으니 이제 다시 힘차게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 장영미 전도사 >